수요성서학당 | 올바른 영적 체험을 위한 묵상

0 들어가는 말

어느 TV쇼에 한 젊은 여자가 나와서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여자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어야 할까?’ 고민한다고 말하여 듣는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얼마나 심각한 사연이 있기에 낱아주고 길러 준 어머니와 관계를 끊어야 할지를 고민한단 말인가. 더 충격적인 것은 여자가 그런 고민을 하는 배경에 종교가 있다는 것이다.

여자는 어린 시절 점집 옆에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이 무당을 얼마나 추종하는지 아무 대가 없이 무당집 식모처럼 살았다. 무당의 자녀들을 거의 데려다 키우다시피 했고, 때마다 철마다 점이며 굿이며 집안의 돈을 무당에게 탕진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무당에게 큰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날 후로 이 무당은 잠적해 버렸다.

사연이 여기까지였다면 ‘한번은 그럴 수 있겠다’하고 넘기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어머니는 절에 빠지기 시작했고, 거의 매일 절에 가서 살다시피 했다.

그러다가 지금은 어느 교회에 빠져 있는데 거의 매일 교회에 나가 살다시피 한다는 것이었다. 더 황당한 일은 그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안 따라가는 자신을 향하여 “마귀”라고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어머니도 자신을 마귀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종교 생활 때문에 평생을 고통 받았는데, 이제 그런 소리까지 들으니 관계를 끊어야 할까 하는 극단적인 고민을 하게 된 것이다.

종교는 강력한 힘이 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종교는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의 세계는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계이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많고, 잘못된 체험이 삶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과연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1 묵상의 목적

도덕적 교훈이나 실천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달리 표현하면, 묵상은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것이 목적

2 올바른 영적 체험

1) 마태복음 7 : 15~20

2) 나무의 비유

예수님이 영적 세계를 “나무”에 비유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나무는 땅 속의 뿌리부터 꼭대기의 잎사귀까지, 전체가 하나의 일관된 체계이다.

영의 세계도 그렇다.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분명한 관점으로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 하나님의 세계는 질서 없이 흩어져 있는 세계가 아

니다. 하나의 나무처럼 모든 것이 정확한 체계를 가진 세계이다.

올바른 영적 체험이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질서를 체험하는 것이다. 뒤죽박죽 오락가락하는 식으로 영적 세계를 설명하거나 표현한다면, 올바른 영적 체험이 될 수 없다.

3) 나무와 열매

또한 예수님은 열매에 대해 말씀하셨다. 나무와 열매가 서로 동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건강한 나무에서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는 것이다.

올바르고 건강한 영적 체험은 반드시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결실한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체험한 사람의 삶이 무질서해질 수 있겠는가? 거룩한 의미들로 충만한 세계를 경험했는데, 삶이 무의미해질 수 있겠는가? 아름다운 세계를 경험했는데, 아름답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겠는가?

3 올바른 영적 체험을 위한 묵상

1) 성경 속 “문제들”을 주목하라.

성경은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다룬다. 성경은 결코 고상한 척 하지 않는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우리만도 못한 윤리적 문제와 결함을 가진 인물들이 많다. 성경은 그들의 나약하고 연약한 삶의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뭘까? 그들의 갈등과 고민, 삶의 온갖 문제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성경 앞에서 내 인생의 문제가 드러나야 한다. 그래야 영적 세계가 저 멀리 어떤 우주 공간에 있는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세계임을 알게 된다.

2) 하나님의 통치와 행동을 주목하라.

성경이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 위에 있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다. 성경이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뭘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다. (ex. 요셉의 이야기)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마가복음 1:15)

3) “십자가”를 기준에 두라.

성경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혼란스럽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다.

최대한 성경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묵상의 목적은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다면 이해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것은 “십자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